

굽주린 배부름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5)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6)

적용하기

글 로벌 기업의 고위 간부들을 상담하는 심리 상담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들은 사람들의 소원 성취가 결코 주리고 목마른 삶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상류층 사람들은 술을 남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남용한다.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하면 활력이 넘치지만, 그 느낌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내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달콤함을 맛보기 때문에 전보다 더한 중압감을 갖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성공을 해도 예전처럼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성공에 대한 절박감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생이 종국 되어 가는 것이다.”

하 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방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의”로 향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인 것입니다.

1. 여러분의 인생에서 간절히 원했던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간절했던 소원 한가지만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2. 스피노자는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렘 2:13)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욕망을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뭔가를 이루기 위한 욕망으로 “주리고 목마라” 있는 것입니다. 주리고 목마른 삶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삶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엄청난 보람과 기쁨을 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두번의 소원 성취의 사건들로는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만한 성공가도의 사람들도 주리고 목마른 인생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우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인생이 채워지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상 주리고 목마른 삶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삶에서 주림과 목마름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자신있게 “아멘”으로 답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분명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되심을 믿고 있음에도 삶의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있음에도 예상을 벗어난 인생과 맞닥드리는 순간 어김없이 삶에서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3.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선한 행동, 도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쓰는 삶을 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고전 10:31)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삶을 **고린도전서 10:31**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일상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

굶주린 배부름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5)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6)

적용하기

2 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첫승을 거둔 히딩크 감독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첫승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승리를 원하고, 승리에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첫승에 만족하지 않고 승리에 굶주려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는 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즉 하나님에 대해 잔뜩 굶주린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어떤 정도의 주림과 목마름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리다(헬: 페이나오) - 마 4:2, 목마르다 (헬: 디사오) - 출 17 (므리바 사건)

"의에 주린 삶"은 40일을 먹지 않은 사람의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라는 헬라어가 "디사오"인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폭동을 일으킨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목마름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목마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종합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은 40일을 먹지 못한 굶주림으로, 갈증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매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망으로 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는 일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자잘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삶이 시작되어야 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5.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가 해야 할 도리를 지키는데서 유지가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로 도리를 다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가 요즘 트렌드라고 하지만, 부모가 결코 자녀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은 서로 해야 할 다른 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도리를 지키는데서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 할 도리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자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지금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겠지."하면서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금식하는데, 왜 안보고 계십니까? 금식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는 눈물

팔복 강해 - 이렇게 살아가라 (3) | 구역 나눔 교제 | 설교자: 황성국 목사 (마 5:4)

적용하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 5:48절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완전히 꺾여집니다. 벽이 높아도 너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산상수훈이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 주기 위한 말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을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습니까?” 하자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사 58:6-7 (표준새번역)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풀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금식으로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형제가 어려울 때 긍휼을 베풀고 돌보는 것인데 금식만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의 금식을 기뻐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리를 지킨다는 이스라엘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6.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은 너무 높아’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신 30:11-14) C. S 루이스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라고 단정짓고 돌아서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11-14 (공동번역)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마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도 마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기는 한거냐? 그렇게 애를 써보고 나서 나한테 너무 먼 말씀이다 하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계명은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려고 든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일을 가서 하십시오. 기독교의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곧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치고”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기에는 내가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런 말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바로

적용하기

사랑한다 치고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감정이 없는 의지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나의 강박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강박하고 메마른 내 마음을 적시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고야 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에게로 보낸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우리는 다시금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려 들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한다 치고”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질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치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감정이 없는 의지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 나의 강박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강박하고 메마른 내 마음을 적시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고야 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에게로 보낸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우리는 다시금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그 복이 배부름입니다. 잘먹고 잘사는 육적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총만한 영적 배부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에 너무 가슴 뿌듯한 배부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릴수록 배가 불러지는 역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자는 역으로 배부른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7. 코로나 팬더믹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